

한국 유(襦)의 일본 전파와 변천에 관한 연구*

김 미 자
서울여대 의류학과

A Study on the Diffusion and Change of the Korean Hip-length Jacket(襦)

Mi-Ja Kim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1. 2. 7 투고)

ABSTRACT

The hip-length jacket(襦) worn by the Korean from the ancient times is the prototype of the contemporary jacket. Hip-length jacket was transferred to Japan and worn by all the people beyond the class. From 12C, the King and the high class people wore the clothing influenced by Tang(唐) country but the common people continuously wore the hip-length jacket.

Currently the hip-length jacket is worn by the merchant and is used as the clothing of the celebration. The hip-length jacket has not been much changed in terms of the form.

Key Words : hip-length jacket(한국 襦), hip-length jacket(일의 衣)

I. 서 론

한국의 기본복인 襦는 현재 저고리의 원형으로 고구려 벽화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유(襦:저고리)는 고(袴 바지), 포(袍 두루마기)와 함께 일본과 중국에 전해졌다.

일본에 전해진 유 즉 衣는 각 시대의 서민들이 계속해서 착용하여 현재도 일본 상인의 제복(制服), 축제복 등으로 입혀지고 있으며 형태변화는 별로 없었다.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衣의 원류를 한국임을 밝히

고, 衣의 형태를 고분시대부터 현대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형태의 변화가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한국은 삼국시대이며, 일본은 古墳시대부터 현대까지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자료는 한국의 벽화, 초상화, 俑과 일본의 하니와(埴輪),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荼羅繡帳), 高松塚벽화, 풍속화, 유물이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일본의 유의 문헌자료와 유물 자료를 분류 고찰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출해내는 비교방법을 사용하였고, 형태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 본 연구는 199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I. 고대 한·일관계와 한국襦

1.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고대 일본의 문화는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형성하였고 왕과 고관등은 지배계층이 되어 일본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말로는 동의하나 글로는 중국을 개입시키는 등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나 각 분야에서 명확한 글을 발표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인의 일본 도래 시기, 왕가의 뿌리, 언어, 국호와 國歌에 관한 일본학자의 견해를 소개한다.

1) 한국인이 일본으로 도래한 시기

武部善人是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도래한 시기를 4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기원전 200년 이래로 彌生文化 成立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 2단계는 5세기 전후에 세습왕권에 대한 정치적 신분질서라든가 氏와 姓 등의 부족사회 형성시기에 도래자가 격증한다. 제3단계는 5C 전후부터 6C 초에 걸쳐 한국의 남부로부터 신기술을 가진 집단이 이주하였고, 특히 신라 고구려의 압박은 남은 백제인 다수가 이주하였다. 이들은 大和정부의 기구를 강화하는 밀거름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분시대후기의 민중생활에 크게 작용하며, 불교도 전래된다.

4단계는 7C후반으로 한국남부에서 대량으로 이주하였다. 이때는 2-3천명씩 건너간 신분이 그리 낮지 않은 백제유민들은 중앙에 거주하고 고구려 신라인들은 지방에 거주하였다."¹⁾

2) 왕가의 뿌리(일본천황은 한국인)

上坦外憲은 『천손강림의 길』에서 천손이 쓰꾸시(筑紫)에 강림했는데 천손은 현해탄을 건너온 도항인으로 낙동강 하류에서 살던 사람(筑紫)이라고 하였으며, 三笠宮崇人是 『일본의 여명』에서 천손 니기노미코토(천황가의 황조)가 강림한 일본의 개국신화는 한국 개국의 단군신화, 6가야국의 개국신화와 꼭 같은 계통의 것이라고 하였다.²⁾

渡辺光敏은 『日本天皇渡來史』에서 "일본고대사

는 왕권과 국가의 성립의 주체이므로 곧 천황사라고 생각하며, 일본천황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였다.³⁾

3) 일본인의 언어

池上三郎은 논문『일본어의 뿌리와 북방민족어의 비교연구』에서 일본어의 심층에는 북방민족의 말이 깔려있다⁴⁾고 했으며 이 결론에 관해 박병식은 『도적맞은 우리국호 日本』에서 중국의 여러 문헌에 중국동북방에 있는 흑룡강, 송화강, 요하, 아무르강 등 큰 강의 유역은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고장임을 입증하고 가라족이 일본열도 주민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을 언어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

또한 大野 晋교수는 『日本語의 기원』(1957)에서 "彌生期가 시작된 B.C 300으로부터 A.D 300까지의 사이에 일본어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은 남부 조리어가 전래 됐기 때문임을 증명했다."⁶⁾

4) 일본 국호와 국가(國歌)

安達巖은 "日本"이라는 국호는 처음 三韓인이 부르기 시작한 것인데 우리나라(日本)의 국호로서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만세불변의 국호가 되었다.⁷⁾고 했다. 일본의 國歌인 "기미가요"는 고대 규슈왕조의 노래였다고 규슈의 향토 사학자들 가운데 토박이 몇 분이 믿고 있으며 사학자 吉田武彦씨도 이 주장에 동참하는 학설을 내세운 바 있다.⁸⁾

2. 한국 유(襦)의 종류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의복은 같다는 양서, 위서, 수서, 북사, 구당서의 기록과 가시적 자료⁹⁾(도 2)가 거의 일치하므로 가장 자료가 많은 고구려 고분벽화 28기 중에서 유 315벌¹⁰⁾ 김유신 묘 12지호 석상, 唐의 장희태자묘벽화의 한인사절(고구려 사절 8C초)을 통해서 유를 고찰한다.

1) 4-6C의 襦

유의 기본형(도 1)은 展開左袵窄袖에 옷길이는 둔부정도 길이(短衣)이고 옷깃, 섶, 밑단, 수구에 黑色선이 둘러져 있고 여밈은 깊지 않은데 선넛이 내

외로 여며진다. 반드시 옷을 겹쳐 입었으며 유의 안쪽 옷은 등근 깃(도 3)과 곧은 깃 2가지 형태가 보인다. 기본형 이외에 長襦(도 4)와 우임을 많이 착용하였다. 소매길이는 상류층은 길고 하류층은 짧다. 長襦를 남자가 모두 착용하였는데 여자의 長襦착용은 기록¹¹⁾과 일치한다.

異色 선(襟)의 유무와 위치, 색 배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襦는 황해도, 평양지역 안악 3호분, 덕흥리고분, 감신총, 약수리고분에 나타난다. 이색 선이 옷깃에만 있는 것, 밑단에만 있는 것, 수구 옷깃 밑단에 댄 것, 옷깃은 흰색, 밑단은 흑색, 수구는 분홍색 선을 댄 것, 선이 전혀 없는 것(도 5)도 있다.

상류층의 선은 다양한 색깔로써 副선이 있는 것 등이었으나 서민의 선은 주로 흑색이었다. 또한 帶를 매지않은 유(도 6)가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끈이나 매듭끈을 달아 여몄을 것이다.

2) 7C의 襦

착수(窄袖)장유는 일본 法隆寺아미타여래座像 座臺(7C중엽)의 고구려인상(도 7)과 사마르칸드 고구려사신¹²⁾(7C중후기)(도 9)이 착용하였으나 광수(廣袖)장유는 돈황 220호굴 벽화(642)의 고구려 사절과 돈황 335호 석굴 벽화의 한인사절(686) 및 장희태자묘(684년 혹은 706년에 그렸다고 봄) 한인사절(도 8)이 착용하였으며, 신라의 김유신묘 12지 호석상도 廣袖長襦를 착용하였는데 수구 쪽이 더 넓은 소매이다. 여밈은 좌임, 우임이 공존하였다. 사마르칸드의 고구려사신(도 9)의 옷깃부분이 떨어져나가 보이지 않는데, 등근깃으로 그린 것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廣袖襦는 4-6C 벽화에는 보이지 않는데 隋書(629)와 北史(唐 李延壽 지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廣袖襦는 6C 이후에 유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III. 일본 衣의 변천

일본 服飾의 시대구분은 北村哲郎의 구분법을 따랐으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와 같은 시기인 古墳時代부터 다루었다. 古墳時代부터 室町時代(1333-1573)까지는 일반적으로 二部式(衣袴, 衣裳)이 주로 착용되었다. 平安時代(792-1182)에는 袍의 착용이 많아졌으며

團領, 즉 일본 禮服의 國風化(일본화)가 이루어졌으며 江戸時代(1573-1839)에 기모노(着物)가 정립되어 현대에 이르고, 한국의 기본복과 같은 의, 고, 또는 作業服(民俗服)으로 현재까지 착용되고 있다.

복식用語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 古墳時代의 衣

고분시대의 衣자료는 벽화 및 하니와가 있다. 벽화는 수도 적고 자세하지 않고 하니와는 고분시대 의복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고고학적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하니와에 관한 수 많은 자료 중에서 衣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문헌¹³⁾을 참고하여 하니와의 衣양식과 한국 3국시대 유와 비교 분석한다.

하니와의 기원은 첫째,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과 둘째, 단순한 墳丘 주위에 등글게 세워 놓아 장식하고 구역을 정하는 동시에 靈域化하는 사상을 표현하기 위함과, 셋째 중국의 墳墓에 세운 石人, 石獸와 내부에 넣는 명기와 관계가 있고, 넷째 《日本書記》에 의하면 垂仁天皇때 殉死의 風을 고치라는 野見宿禰의 進言에 의해서 人馬 등의 형을 흙으로 만들어 묘에 세웠다고 한다.(크기는 56.6cm~161.8cm이며 대체로 크다.)

하니와의 분포는 靑森, 秋田을 제외하고 東北에서 九州까지 있으나 富山, 高知, 長崎에는 없다. 인물 하니와는 關東지방(6C말-7C)에 편중되어 있고 近畿지방(5C중후반)에는 적다. 이와 같은 인물 하니와의 분포지역과 연대에 치우침이 있는 점이 인물 하니와의 제한점이지만 지역과 연대에 따른 복장상의 차이점은 별로 없었다. 옷깃을 알 수 있는 40여종의 하니와를 고찰한 결과, 남녀 모두 筒袖이고 긴 衣에 남자는 禪(도 12), 여자는 裳(도 10)을 입고 있다. 衣의 옷깃은 盤領(도 10)과 垂領(도 11)의 두 형식이 있는데 반령이 많다. 임(襟)은 모두 좌임이다.(우임령은 양로3년(719) 내림) 옷깃과 허리 부근 2개소에 끈으로 매었는데 1개나 3개를 사용한 것도 있다. 남자는 모두 衣위에 帶를 띠고 小刀 등을 매달았다. 대는 좁거나 넓은 布帛帶이다. 농부는 長襦(도 13)만을 입고 있다.

인물 하나와의 上衣와 三國時代 유를 비교한 결과 공통점은 형태가 같다. 즉, 前開窄袖左衽短衣와 長衣이다.

차이점은 ① 둥근 깃을 많이 착용하고 있다. 고분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던 때로 일본에서 遣隋使가 607년 처음 파견된 이후 3차례 보내졌고, 遣唐使는 630-894년까지 18회 파견되었다. 그러므로 하나와의 둥근 깃 상의는 한국에서 건너간 가이나 삼국시대 사람들의 옷이라고 생각한다. ② 남녀 모두 작은 끈으로 매어 여몄으며, 여자의 衣에는 帶가 없었다. 여자들이 대를 띠지 않은 이유는 무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남자들은 작은 끈과 함께 대를 착용하였는데 무장과 기마에 편리했기 때문으로 본다. 작은 끈의 사용은 다습한 기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문순지대에 속해 있으므로,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 참기가 어려우며 겨울은 추워서 여러 겹을 겹쳐 입었다. ③ 농부들은 長衣 하나만 입었는데, 다습한 기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江戸時代에도 노동자나 천민층 중 長衣만을 착용한 경우가 많았다.

둥근 깃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설1: 가야인은 둥근 깃을 한국에서 걸옷으로 착용하다가 彌生시대에 둥근 깃을 입고 도래하여 호족이 되어 권력을 잡고 있는 중에 곧은 깃을 곁에 입는 습관을 가진 백제, 고구려, 신라인이 도래하여 2가지가 함께 착용되었다. 가설2: 한국의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인은 걸옷으로 襦를, 내의로 둥근 깃 衣를 착용하는 습관이었으나, 어떤 사람들이 내의로 착용하던 둥근 깃 衣를 일본에서 걸옷으로 착용하기도 하여 2가지가 섞이게 되었다.

2. 飛鳥, 白鳳, 奈良時代의 衣

6C말부터 8C말에 걸친 시기는 일본이 율령제 국가가 된 시기이다. 처음 약 1C는 그 준비 기간으로 大和조정이 飛鳥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飛鳥시대, 大和개신(645)부터 710년까지를 白鳳시대라고 하며 이후 70여년간을 율령제 국가가 확립된 시기로 奈良시대라고도 하는데 唐의 수도를 본 뜬 平城京을 나라에 만들어(710) 정치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飛鳥시

대의 衣는 天壽國曼荼羅繡帳을 白鳳시대의 衣는 高松塚벽화를, 奈良시대의 衣는 문헌을 참고하였다.

1) 飛鳥시대의 衣

天壽國曼荼羅繡帳¹⁴⁾에는 관인, 귀족남녀(도 14, 15), 서민, 스님 등 40여 인물이 등장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많으며 의복과 색 등 완전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인물은 8인, 衣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인물은 25인이다. 25인 중 색깔있는 옷은 15인이고 10인은 하반신 부분의 繡가 떨어져나갔다.

天壽國曼荼羅繡帳과 한국의 삼국시대 유를 비교한 결과 ① 남녀의 입음새는 2부식으로 衣襟, 衣裳양식이며 襦를 착용하였다. 7C후반의 고구려 사신(도 8)도 襦를 착용하였다. ② 衣의 옷깃, 쇄, 수구, 밑단에 異色襟을 들렀다. ③ 남자 衣에는 布帛帶를 맺으나 여자 衣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작은 끈을 이용하여 여몄는데 다습한 기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남자의 대 사용은 武裝과 騎馬에 편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든 衣의 옷깃은 둥근 깃이었는데 그 이유는 고분시대의 가설①②에 제③가설을 첨가한다. 가설 ③: 天壽國曼荼羅繡帳의 둥근 깃 衣는 이 당시 보편적인 의복이었다. 그러나 대신들(혹은 백제계 대신만일지도 모르겠다)은 백제 옷인 유, 고를 착용하고 있었다. 즉, 飛鳥寺가 건립되자(596) 蘇我馬氏는 백제에서 가져온 사리를 봉안하고 大臣 100여인과 함께 백제 옷을 입고 참여했다고¹⁵⁾ 강조한 것은 이 당시 둥근 깃 衣와 달랐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인의 襦는 곧은 깃이므로 가야인의 衣가 아닐까 가설을 세워 보았다.

2) 白鳳時代의 衣

高松塚벽화(7C후기-8C초)의 시녀[仕女, 采女]라고 생각되는 8인의 복장(도 16)은 垂領左衽長衣를 땅에 깔리는 긴치마나 색동치마 위에 입었다. 衣의 垂領(곧은깃)에도 포와 같이 가슴 위부분쯤에 매듭단추나 작은 끈으로 묶었으며 포백대를 느슨하게 매어 늘어뜨렸다. 衣의 밑단에도 난(襪)이 있으며 난 밑으로 襪이 보이는데 五味充子は 內衣의 주름으로 보였다.¹⁶⁾

高松塚벽화와 고구려고분벽화를 비교하면 공통

점은 衣는 垂領, 좌임, 장의이며 衣의 옷깃과 襟에 동색 선을 뒀으며 포백대를 뒀다.

차이점은 옷깃에 작은 끈이나 매듭단추를 달았는데 이 매듭단추는 조복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보며褶이 계속 착용되고있다.

3) 奈良시대의 衣

나라시대의 지배층계급의 복장은 685년에 신라식 朝服을 제정하였으나 서민(농민, 노비)의 복장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과 지배층의 격차가 컸다.¹⁷⁾ 關東지방에서 늦게까지 제작되었던 하니와의 복장을 보면 의곤, 의상 모습으로 변함이 없었고, 기록과도 일치한다. 「北史」와 「隋書」 倭國傳에 남자와 여자는 裙과 유를 입었으며 상에는 선을 들렀다고 하였고¹⁸⁾ 「日本書記」에 676년(天武5년) 고시왕자이하... 小錦이상 대부등에 衣, 高, 습...등을 하사했고, 685년(天武14년)과 686년(朱鳥元年)에는 왕과 신하에게 3회에 걸쳐 御衣·고, 錦衣·고, 紫衣·고를 하사한 기록이 있다.¹⁹⁾ 이후는 조복과 포, 고를 하사한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배계층에서 衣, 고는 더 이상 입지 않았지만 官戶, 노비의 衣, 고 착용은 계속 되었음을 715-721년 養老雜令給衣服條로²⁰⁾ 알 수 있다. 즉, 관호, 노비는 3세 이상이 되면 매년 봄에는 布袴, 高, 衫, 軍 각 한 벌, 겨울에는 布襖, 高, 衣, 軍 각 한 벌을 지급하였다. 이상으로 서민은 고분시대의 의곤, 의상, 長衣, 橫幅衣 등을 계속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平安, 鎌倉, 室町시대의 衣

平安시대란 京都로 수도를 옮긴 때(794)부터 鎌倉에 막부를 설치하기 전까지의 약 400년 간을 말하며 鎌倉(1192-1333), 室町(1336-1573)시대란 武家가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400여년간을 말한다.

지배층의 의복에는 唐풍이 강하나 일반 서민의 의복은 간단하며 노동하기에 간편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의곤의 유평인 垂領細袖 短衣에 짧은 나 긴 小袴(도 17)를 착용하였다.

하인²¹⁾의 服裝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적합한 기능적인 옷이며 주인의 행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화려함도 필요했고 역할에 따라 색상이나 의복을

다르게 할 필요도 있어 유니폼(uniform)으로 통일되었으며 옷감은 麻布를 사용하였다. 또한 公家の 服飾중에서 활동적이고 公的인 성격이 없는 가리기누(狩衣, かりきぬ) 혹은 水干위에 무릎까지 오는 小袴를 입었으며 다리에 脛巾(행전)을 하기도 했다.²²⁾

<도 18>은 직인의 小袖 위에 小袴를 입은 모습이고 <도 19>는 하인의 直垂위에 小袴를 입은 모습으로 둘 다 같아 보이나 속에 입은 小袖(도 20)와 直垂(도 20)는 다른 옷이다. 直垂는 수구와 밑단에 선이 없는 삼국시대 유와 유사하다.

4. 江戸時代의 衣

室町幕府가 쇠한 후(1573) 실권을 잡은 사람은 織田信長과 豊臣秀吉이었으며 이어서 德川家康이 江戸에 막부를 둔(1603)이후 266년간 江戸幕府는 계속되었다. "幕府는 봉건 착취 체제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신분제를 시행하였다."²³⁾

江戸시대의 복식은 전시대의 二部式과 一部式이 부분적으로 변형되면서 이어졌는데 二部式은 고분시대의 衣와 고가 전승되어 서민복(農民服, 職人服, 町人服)이 되었고 현재도 작업복으로 입고 있다. <江戸物賣圖聚>²⁴⁾에서 상인들의 衣 20점(도 21)과 장의(도 22) 4점을 고찰한 결과, 끈은깃과 襟에 동색선이나 이색선을 들렀다. 상인의 복장은 농민, 직인의 복장과도 같았다.

<도 22>는 江戸시대의 小袖이지만 한국에서는 長襦(길이가 종아리까지 오는 것)라고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長衣로 분류하였다.

한뎨(半天, 도 23, 24)은 일반부녀의 방한복(숨두었음)으로 옷깃이 좁고 襟과 무가 없는 것으로 앞을 여미지 않고 입었다.

和服用 속옷인 疋半(襦袢, 도 25)은 하인, 남녀나 서민계급의 작업복으로 착용되었으나 후에는 일반 서민계급도 기모노의 속옷으로 착용했다. 한뎨와 疋半은 옷깃 襟에 선이 있는 삼국시대 유와 유사하다.

5. 明治時代~현대의 衣

明治시대는 국민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갖게되었으

며 복식제한도 해제되었다. 양복의 채용은 일본역사상 가장 큰 변혁이었다.

大正, 昭和시대의 복식은 明治시대의 연장으로 和洋服飾 이중생활이 중류 이하에까지 퍼졌다. 풍속, 복식의 변모는 大正12년의 관동 대지진이 계기가 되었다. 대지진후 東京의 건물은 洋式化되었으며 의자식 생활에 적합한 경쾌한 작업복[仕事服]과 사무복을 필요로 하게 되어 직장에서부터 의복개량이 실시되었다. 作業服[仕事着]은 도시인의 의복보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의복이 기본적인 형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服飾의 의복의 원형, 고찰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民族學 博物館 소장품(1921-1952까지 수집한 노동복)²⁵⁾을 분류·분석한 결과의 연구논문과, 東日本·西日本の 작업복 보고서²⁶⁾를 비교한 결과, 작업복의 형태는 비슷했으나 호칭이 약간 달랐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작업복의 衿과 袖의 圖(도 26, 27)만 실었다.

<도 26>의 短衣(도 26②-④)와 長着型(도 26-①)은 삼국시대 유와 매우 유사하며 옷깃 다는 법과 소매형태(도 27)가 다양하나 형태변화가 별로 없이 계속 착용되었다.

2) 상인의 제복(制服)과 마츠리복(祭服)

江戸시대 상인들이 자신의 상점의 상호를 선전하기 위하여 옷깃이나 등에 수를 놓거나 염색하는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스시집, 우동집, 라면가게 등의 점원들이 착용하고 있는데 형태는 삼국시대 유(밑단에 선이 없음)와 같은 형이 대부분이다. <도 28-1, 2>의 마쓰리복은 한국유학생들이 1995년 일본 로타리 클럽장학회의 초대를 받아 鶴川마을 여름축제에 참가한 후 기념으로 받은 마쓰리복으로 衣의 옷깃, 襟에 이색선이 돌려져 있으며 허리에 대(帶)를 매었다.

IV. 결 론

① 三國時代 유와 하니와(埴輪, はにわ)의 衣의 형태는 거의 같았다. 즉 衣의 원류는 한국임이 밝혀졌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

니와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등근 옷깃인데, 日本學者들은 이 등근 깃이 中國6C 朝服인 盤領袴褶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장²⁷⁾하고 있다.

그러나 趙 武靈王이 채택한 袴褶은 5C까지 계속 垂領袴褶이었으며 6C에 盤領袴褶이 들어왔을 때도 垂領袴褶은 여전히 존재했었다. 또한 日本의 古墳時代는 중국과는 교류가 별로 없었던 때이므로, 필자는 하니와의 등근깃 上衣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가야나 三國時代 옷으로 생각한다.

또 하니와의 上衣에 작은 끈을 사용한 것과 농부가 長衣만을 입은 것 등은 日本의 多濕한 기후와 관계가 크다고 생각한다.

② 天壽國曼荼羅繡帳과 高松塚 벽화의 褶은 고구려 국사도(도 8)와 통일신라 12지 호석상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본다.

③ 衣는 서민의 걸옷으로 계속 착용되었다. 江戸시대의 농민·職人·町人の 걸옷인 衣는, 소매가 다양하게 分化되어 筒袖·平袖·鐵袍袖등이 있었고, 疋半(襦袢, じゅばん)과 한뎌(도 24)도 衣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④ 한국에서 유는 현재의 저고리로 되었고, 유도복과 태권도복에 자취가 남아있으나,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마쓰리복과 상인의 制服으로 입혀지면서 한국의 기본복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 기본복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설을 세워본다.

한국 서민층은 전통복을 입었고 관리들은 근무할 때는 관리복(중국옷)을 입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서민과 같은 전통복식을 입었으므로 전통복식은 각 시대의 국민 모두에게 입혀져 현대의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나라시대에 지배층을 위한 복장의 制度化가 된 반면, 官戶, 노비는 의, 고착용이 계속 되었다는(주 20참조) 기록과 같이 신분제도에 따른 복식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내려왔다. 江戸시대에는 신분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천민(部落民)²⁸⁾은 전통복식만을 착용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종사할 수 있는 분야는 주로 작업하는 곳이었으므로 전통복식은 작업복으로 인식하게 되어 현대에 이르렀다. 한편 서민 중 전통복식 애호가들은 계속해서 착용하는 사람도 있어 현대에 이르렀다고 본다.



1. 冠帽
2. 襦
3. 帶
4. 袴
5. 裳裙
6. 袍
7. 履靴
8. 鐃(耳飾)
9. 環珠(頸)
10. 釵
11. 環珠(綴衣)
12. 組纓



新羅



百濟



高句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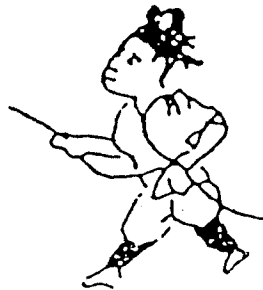
<도 1> 우리나라 古代 基本服飾
(李如星, 朝鮮服飾考, p.1)

<도 2> 梁職貢圖(6C)의 3국 사신
(李成市 梁職貢圖의 고구려사도じつについて)

<도 3> 襦와 등긔 깃 衣
(장천 2호분, 조선일보, 1983. 4. 26)



<도 4> 雙楹塚 장 襦·裳
《韓國美術 1. 古代·高麗》



<도 5> 裸胸의 유와 행진
(약수리 고분, 고구려 문화)



<도 6> 帶없는 좁은바지
(덕흥리 고분:고구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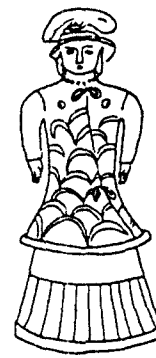
<도 7> 奈良 法隆寺
아미타여래 座臺人物像
(한국일보, 1992. 11)



<도 8> 章懷太子墓 壁畫 高句麗 國使
《中國의 美術 II 圖28》



<도 9> 사미르칸드 아프리카시암 壁畫人物
(古代 サマルカソド의 壁畫, p.15)



<도 10> 하니와 衣·裳
《小堀榮壽의 埴輪樣式分類圖, 衣生活 191》



<도 11> 胡座의 남자 곁은 깃 衣·裳·袴
《日本の美術 3》



<도 12> 하니와 男 衣·袴
《日本の美術 3》



<도 13> 하니와 농부
小堀榮壽의 埴輪 様式分類圖(衣生活 191)



<도 14> 空手한 남자 紅衣·緣袴·朱黃
褶(天壽國曼茶羅繪帳 部分)



<도 15> 黑衣·白裳
(天壽國曼茶羅繪帳 部分)



<도 16> 高松塚 壁畫 女官
《日本美術全集 3. 圖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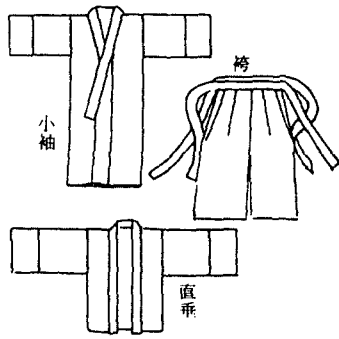
<도 17> 平安, 鎌倉時代의 衣袴
(切畑健, 粉河寺錄起繪에서 본
武士와 庶民의 服裝, p.11)



<도 18> 職人의 小袖·袴
(『日本歴史圖錄』 p.144)



<도 19> 하인의 直垂
(『日本歴史圖錄』 p.144)



<도 20> 小袖, 直垂, 袴
(資料:일본 역사도록 p.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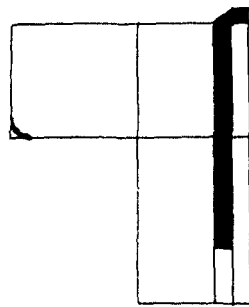
<도 21> 襟 있는 衣袴
(三谷一馬, 江戸物賣圖録, p.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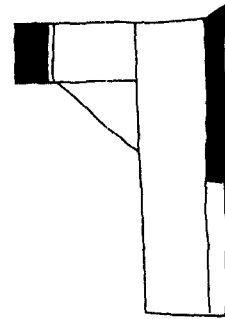
<도 22> 長衣(小袖)
(庶民の服装, p.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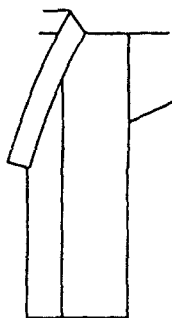
<도 23> 半天姿(ワーグマン筆
「街路夜景」幕末~明治初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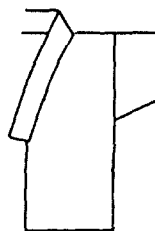
<도 24> 半天실속도
(1994년 제작 (필자소장))



<도 25> 鐵袍袖 衿半
(遠藤武, 服飾構成上에서 본 小袖一續, p.48)



① 長着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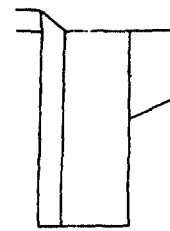
② 別衿襦袢型



③ 本衿襦袢型



⑤ 半纏型



④ あけ衿型

<도 26> A. M Collection 노동복의 袖와 衿
(中村たかを編, 日本の労働着, p.p.132-133)



<도 27> A.M collection 노동복袖

<도 28-1> 鶴川 마을 여름축제복(1995)

<도 28-2> 鶴川 마을 여름 축제복 전개도 (필자소장)

참고문헌

- 1) 武部善人 『日本木綿史研究』東京吉川弘文館 昭和60年 p.p. 68-69
- 2) 崔性圭 『일본왕가의 뿌리는 가야왕족』 을지서적 1993. pp.15~16
- 3) 渡辺光敏 『日本天皇渡來史』서울 지문사 1995 서문
- 4) 池上三郎 『日本語のルーツと 北方民族語の比較研究』 『言語』東京 1987. 6.1 大修館書店
- 5) 박병식 『도적맞은 우리국호 日本』문학수첩 1998 p107
- 6) 金聖昊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지문사 1982. p24 재인용
- 7) 宋達殿 『彌生文化のルーツは出雲だ』1992 이봉하 『가야가 세우고 백제가 지배한 일본』 도서출판 보고서 1998 p147, p153 재인용
- 8) 崔性圭 『일본왕가의 뿌리는 가야왕국』p289
- 9) 단석산 신신사 마애공양 인물상(長襦廣袴) 경주 栢栗寺 이차돈 공양 石幢(短襦 廣袴) 천마총 白樺樹皮製 笠의 기마 인물상(短襦 廣袴) 울주 천전리 암각 인물상(短襦 廣袴) 백제 무녕왕능 출토 유리 동자상(長襦 廣袴) 고구려, 백제, 신라 國使圖[梁職貢圖](長襦 廣袴)
- 10) 김미자 『한국 襦袴와 중국 襦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연구』 『服飾33호』 1997.p.75
- 11) <周書><通典><北史>百濟條에 출가한 여자옷은袍와 비슷하고 (衣似袍) 그 소매가 넓지 않다.(袖微小) <唐書>新羅條 부인은 長襦를 입었다.
- 12) 신라사절이라는 설과 고구려사절이라는 설, 발해설이 있는데, 우즈베크공화국 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아프라시압의 벽화』(타슈켄트, 1975)의 저자 알리바움 (L. I. Alibaum)은 7c 후반으로 보고하였으나 사마르칸드를 1997년에 여행한 김종남씨(전 상공부 섬유국장, 한국복식의 지식이 상당한 분)는 안내인이 7C중기로 안내하고 있었다고 필자에게 안내서를 전해주었다. 발해설에 동의한 필자는 고구려사신이라고 수정한다.
- 13) 小堀榮壽, <埴輪と衣服>, <衣生活> No.191, 1974, p.34 田邊昭三 <古墳時代の服裝と裝身具>, <服裝文化> No.152, 1976, p.34 三木文雄 <はにわ><日本の美術>No.19, 至文堂, 1967, p.p22-77 <埴輪>陶器大系3, 平凡社, 1974, p.p.117-129 龜井正道 『日本の美術』3, 至文堂 1995 高橋克壽 『埴輪の世記』講談社 1996
- 14) 성덕태자가 622년(48세)에 사망한 후 왕생하고 있는 천수국(극락)의 모습을 자수시킨 것. 밀그림은 고구려인이 그렸고 자수는 신라인이 하였다.
- 15) 『扶桑略記』第三 推古天皇上條 이춘계 『正創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일본의 고대복식』 일신사 1995, p44 재인용
- 16) 五味充子 『高松塚壁畫の服飾』 『服裝文化』 No 157 文化出版國 1978
- 17) 武田佐知子 『古代國家の形成と衣服制』東京吉川弘文館 1986, p.6
- 18) 其服飾 男子衣裙襦其袖微小.....婦人束髮於後赤衣裙襦裳皆有襜(隋書倭國傳)
- 19) 成殷九역주 『日本書記』 정음사 1989, p.490, 522, 523
- 20) 이춘계, 『正創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P.61
- 21) 하인이란 上殿을 상인이라고 부르는 용어에 대응하는 말이며 宮延이나 公家에서 일하는 下級官使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뜻한다.
- 22) 北村哲郎, 『일본복식사』 衣生活研究社, 1980 pp67-69

- 23) 井上清 著 서동만 譯 <일본의 歷史>, 이론과 실천, 1989, p.165
塚原ミツ, 「小袖의 歷史的 考察」 『樟蔭東女子短大研究論文集3』1977. 10, p.97
- 24) 三谷 一馬, <江戸物賣圖聚>, 立風書房, 1986 [江戸 시대 292개 직업 중 320人的 圖를 모은 책]
- 25) 中村たかお 編, <日本の労働者>, 源流社, 1988
- 26) 神奈良大學日本常民文化研究所 조사보고, 제11집, 제 12집, 東日本 編, 平凡社, 1986, 1987
- 27)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古代篇』, 文化出版局 東京 p.261
- 28) 東大日本史辭典編纂會編 新編 『日本史辭典』 東京創元社 1990